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희 수도회의 어느 공동체에서 생태신학과 최척 「찬미받으소서」를 주제로 피정 강의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수사님 두 분과 함께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수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노래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제목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르는 발라드고, 양요섭, 산들, 정승환이라는 세 명의 가수가 2018년 10월에 열린 MBC 라디오 환경콘서트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으니 그 수사님께서 왜 이 노래가 떠올랐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연결되어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린 연결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같은 숨으로 우린

이 노래는 제목처럼 ‘우리와 모든 생명체 그리고 자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해지기 쉽고, 더구나 동물과 식물, 직접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삶에 별로 관련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

은 하늘 아래서 같은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고, 그렇게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단순한 진리를 이 노래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작사가가 「찬미받으소서」를 읽었거나 통합 생태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주며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DDT를 비롯한 농약의 무차별적인 살포가 병충해 박멸을 넘어 새와 인간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과 같은 환경 도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를 거쳐 되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약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환경 뉴스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찬미받으소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확실하며 중요한 가르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인류가 자연에 관한 어떤 어려운 이론이나 가르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초래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오히려 쉽게 잊는 것은 아닐까요? 「찬미받으소서」를 비롯해서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이 이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